

낡은 정치냐, 새 정치냐? / 전쟁이냐, 평화냐?

노무현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폭발 직전의 서울, 낡은 사고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새정부의 임기안에 첫삽질을 하고 입주하기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행정수도 건설,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하는 국가장기 계획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값 폭락, 도시의 공동화, 경제파국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낡은 정치, 청산해야 할 선동정치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 대결주의로는 전쟁뿐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만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의 강경일변도의 위험한 노선은 다시금 한반도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대결을 불러와 우리의 젊은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몰 것입니다.

낡은 정치와 전쟁을 원하시면 한나라당 후보를 찍으셔도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평화를 갈망하는 국민은 노무현을 선택해주시오.



오늘, 노무현과 만납시다

제3차 TV 합동토론회 (사회, 문화분야)

일시: 20:00-22:00

주관: SBS(KBS1, MBC, YTN 동시방영)

www.knowhow.or.kr

2 국민후보 노무현

새로운 대한민국 -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1588-2002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 새천년민주당

34056